

문화

# “빛의 예술 전통燈으로 시대 문화 담아내요”

## 전영일 작가(전영일공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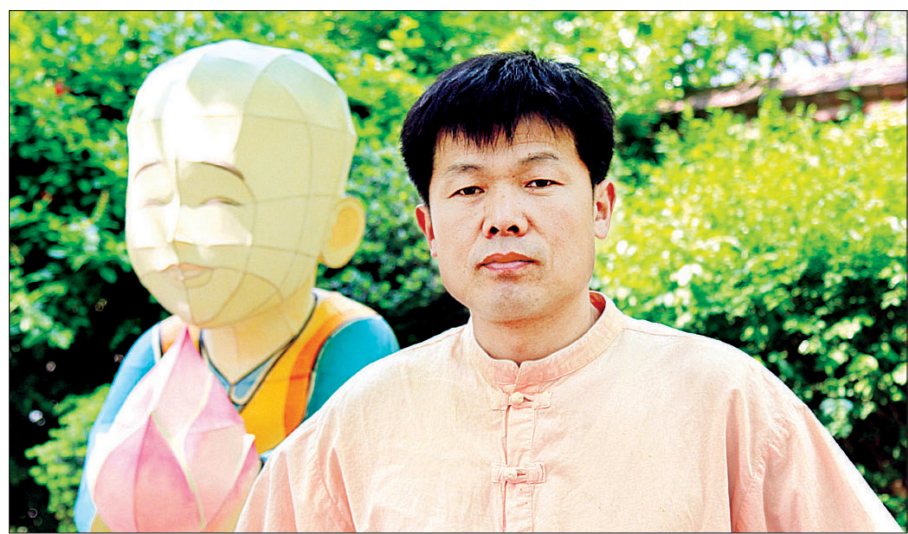
“등(燈)은 시대와 함께하는 예술입니다.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고 또 동시대의 문화를 담아내는 예술이 등입니다. 그래서 늘 시대와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해요. 일반인들이 수박등 몇십개 만들 때 작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등문화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등예술이 고전화 되고 정형화 되어 있다면 등문화도 정체되고 말죠.”

전영일 작가는 단절되었던 전통의 등문화를 개발·발전시켜온 장본인이다. 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대의 언어로 등을 해석해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낸 작가이자 전영일 공방의 대표로 매년 연등회 연등축제 자문, 전통등전시회와 연등회 전통등 전시 강습회를 주관하며 등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전 작가를 만났다.

전영일 작가가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직후인 1998년이다. 흥대 조소과를 다니던 그는 동국대 미대 친구들의 제안을 받고 등만들기를 시작했다.

등은 만드는 이의 소망을 담았고 역동적이며 익살과 재미가 넘치는 민중들의 예술 품이었다. 이런 등의 속성은 학생운동을 했던 그의 성장과도 잘 맞았다. “등 예술은 전통적 민중적 요소를 갖춰야 해요. 그런 맥락에서 등은 살아 있는 예술이고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이죠. 또한 전통 등의 조형적 특징은 현대적 조형언어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도전해볼 만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등문화에 대한 저변도 확대되어 있지 않았고 등제작 요령도 없었다. 명맥이 끊어진 등문화를 복원하고 또다른 예술적 차원으로 등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경제적인



전영일 작가는 현대의 언어로 등을 해석해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냈다.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등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업조각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충해야 했다. 하지만 열심히 민중자료를 찾아 다녔고 스님들의 조언을 듣고 외국 등을 참고해 등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그의 성과들이 한 해 두해 쌓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등문화

### 전통등 복원·예술로 승화 등강습으로 등문화 대중화

도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는 광화문 점등식의 하이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강습등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그는 미륵사지9층석탑, 성덕대왕신종, 사사지3층석탑, 석가탑 등의 장엄등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고 세상을 밝혔다.

“장엄등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15명의 인원이 참여해야하고 전지 6~7백장 정도가 들어가며 불투명 1500여개를 맞춰야 돼요. 파주 작업실에서 광화문까지 등을 옮기려면 13대의 트럭

과 크레인 2대가 움직여야 하는 대형작업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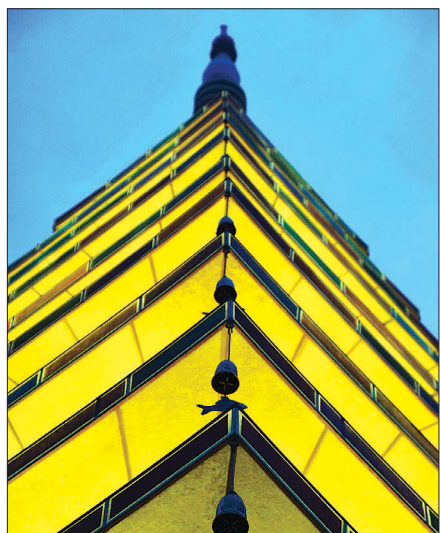
전 작가가 창작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작업은 바로 등강습이다. 등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등을 현재의 문화로 즐길 수 있는 대중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운영하는 전영일 공방에서는 전통등 제작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배포하고 등강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등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등은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분명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공예를 알려나가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 나가는 일에도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각 사찰이나 성보 박물관에서도 전통등을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연구원 확보와 등강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 작가는 앞으로 유럽에 등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 즈음 개인전을 통해 등문화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빛이 머물다 III 빛이 머물다 II -2(조계종 총무원 소장)



광화문에 설치된 미륵사지9층석탑

# 천년의 승지에 한 가닥 오솔길이어

## 아름 난 절과 길의 조화

조선 후기의 ‘강화학파’를 계승한 학자 이극익(李克翊 1736~1806)은 고증(考證)을 역사의 생명으로 여겼다. 그의 대표작인 저술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며 지은 책이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산천의 형승’ 부분에 오대산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다.

“강릉부의 서쪽 1백 40리의 거리에 있다. 동쪽에는 만월봉(滿月峯), 남쪽에는 기린봉(麒麟峯), 서쪽에는 장령봉(長嶺峯), 북쪽에는 상왕봉(象王峯), 중앙에는 지로봉(智 嶺) 등 다섯 봉우리가 둘러섰는데 각 봉의 대(臺)마다 각각 한 암자가 있다. 산 아래에 월정사(月精寺)가 있고 절 끝에는 사고(史庫)가 있다. 또 금강연이라는 못이 있는데 사면이 모두 반석이며, 폭포가 10척(尺)을 흘러 굽이쳐 돌아서 못이 되었다. 서대(西臺) 밑에 통을 댄 수함(水櫃)이 있는데 곧게 솟아오르는 샘물은 그 빛과 맛이 보통 물과 다르다. 이것이 서쪽으로 흘러서 한강의 원류가 된다.”

오늘날의 오대산과 다를 것이 없는 설명이다. 중앙의 지로봉은 오늘날의 비로봉(1537)이다.

다만 서대 밑의 ‘우동수’가 한강의 발원이라는 설은 수그러지고 태백 삼수령 너머 검룡소가 발원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아무튼, 오대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문수신앙의 성지로서 예나 지금이나 매우 사랑받는 산임에 틀림없다.

월정사로 들어가는 전나무 숲길을 요즘 ‘천년의 숲길’이라 부른다. 조선 중기에도 그 숲길은 아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을 것이다. 선비들은 월정사를 시로 읊으면서 이 길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 난 절과 명품 길의 조화는 시인들에게 더 없는 후회로 다가 왔을 것이다.

송증음삼일경통(松 槽陰森一逕通)  
입문초견전비홍(入門初見殿扉紅)  
천층보탑회비초(千層寶塔回飛鳥)  
팔각신령향반공(八角神鈴響半空)  
법집만전왕자적(法畵漫傳王子迹)  
거승나식세존공(居僧那識世尊功)  
종명홀자문수회(鍾鳴忽作文殊會)  
옥좌량연만학공(玉座香煙萬壑風)

술 그늘 우거진속 길 한 가닥 뚫렸는데  
문 앞을 당도하자 홍살문이 보이누나.  
일천 층 보탑에는 나는 새가 맴돌고  
팔각의 방울 소리 반공에 메아리치네.  
불경은 부질없이 왕자의 자취만 전해라  
여기 사는 승려들 세존 공덕 어찌 알리.  
종 울리자 갑자기 문수회가 시작되니  
옥좌의 향 연기에만 골짜기의 바람일네.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19 월정사 ㉑



월정사로 들어가는 천년의 숲길. 조선의 선비들이 사랑하여 그들의 시에 자주 등장했다.

이 시의 제목은 알 수 없다. 지은이는 박광우(朴光祐 1495~1545)로 을사사화 때 화를 입어 젊은 나이에 죽은 선비다. 이 시는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제30권 ‘시문문(詩文門)’에 소개되고 있다.

이익은 시를 소개하며 “사간(司諫) 박광우는 호가 잠소당(潛昭堂)인데, 바로 을사(乙巳)의 유직(遺直)이었다. 그가 강릉(江陵) 월정사(月精寺)에 제(題)한 시는 다음과 같다. 아무튼, 오대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문수신앙의 성지로서 예나 지금이나 매우 사랑받는 산임에 틀림없다.”

이익이 “기개를 엿볼 수 있다”고 했듯이 박광우는 월정사를 매우 장엄하게 읊고 있다. 시는 숲길과 일주문으로 펼쳐져 팔각구층석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옮겨가더니 시가와 청각을 두루 동원해 월정사 안쪽의 경치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서 연연중 “불경이 왕자의 자취만 전한다”고 하고 ‘승려들이 세존의 공덕을 어찌 알겠느냐’며 절에 부합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보여준다. 왕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마지막에 반전을 보인다. 법회가 시작되니 향연기가 만 골짜기의 바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그윽하다. 문수회라는 것은 월정사가 속한 오대산이 문수신앙의 성지임을 강조한 것이고 옥좌는 부처님을 모신 상단이다. 그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법향(法香)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이다. 그 향기가 만 골짜기의 바람이 되어 중생계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 맑고 맑은 귀의처

숲길을 통해 들어간 월정사의 풍경과 부처님의 공덕이 산과 절만큼이나 장엄하게 묘사된 시 한 수를 더 보자.

보지천년승(寶地千年勝)  
잠통일경유(潛通一徑幽)  
거승경세월(居僧輕歲月)  
과객석엄류(過客措淹留)  
비조피령탑(飛鳥避靈塔)  
신룡장고추(神龍藏古湫)  
오대지불격(五臺知不隔)  
타일득중유(他日得重遊)

천년의 승지라 보배로운 이곳  
한 가닥 오솔길 그윽이 뚫렸어라.  
살고 있는 스님은 세월을 가벼이 여기나  
지나는 손은 머무는 시간 아까워라.  
나는 새는 영험한 탑을 피해가고  
신령한 용은 옛 못에 잠겨 있도다.  
오대산이 멀지 않음을 알겠나니  
훗날 다시 와서 노닐 수 있으리.

이 시는 조선 중기의 문신 이항(李荇 1478~1534)의 문집 <용재집(容齋集)> 제2권에 ‘월정사’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항은 <성종실록>의 편찬과 <동국여지승람>의 신증(新增)에 동참했으며 요즘의 국립대학 교수부장에 해당하는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항 역시 ‘한 가닥 오솔길’로 월정사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월정사 풍경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으며 탑과 연못을 매개하여 절의 엄숙함을 찬탄하고 훗날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월정사를 잔잔하게 묘사했으나 탑을 피해 날아가는 새와 옛 못에 잠겨 있다는 신령한 용을 동원하여 시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힘이 대단하다.

천년의 숲길을 따라가면 천년의 고찰이 있고 거기 무량한 시간을 따라 전해 온 진리의 향기가 있으니, 조선의 선비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월정사는 맑고 맑은 귀의처임에 틀림없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민·한중·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b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블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차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전국전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목각단청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회)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